

# [ 충남 경제 비전 2030 ]

충남경제의 현주소

2015. 1. 15.

# 1. 충청남도 개관

- **(충남도민 2,047,631명)** 전국 의 4.0% (51,141,463명)거주, 857,699세대
  - 1989년 대전광역시,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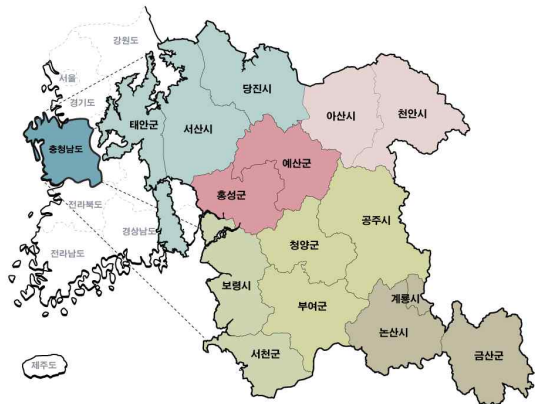
- **(국토의 중심, 국토면적의 8.6%)** 15개 시·군(8개 시, 7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은 총 8,204km<sup>2</sup>로 전국의 8.6%를 점유

- 도서 271개(유인도 32, 무인도 239), 해안선 연장은 1,062.2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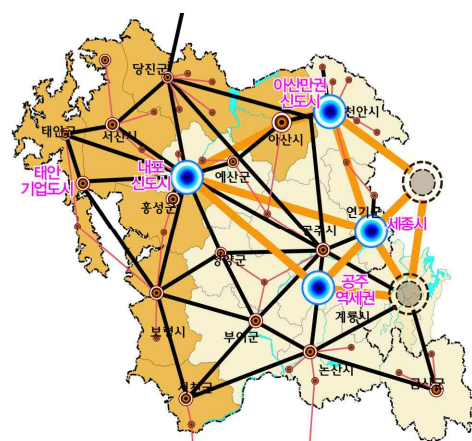
- **(對중국 교류의 중추거점)** 중국의 관문 항인 대련항, 청도항 등과의 최단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교역 및 환황해 교류의 거점지역

- 산둥반도(룡연항)-서산(대산항) 339km 전국 최단거리

- **(첨단산업과 역사·문화의 중심지역)** 충남도 전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 내포신도시-천안아산-공주-세종의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발전축 및 발전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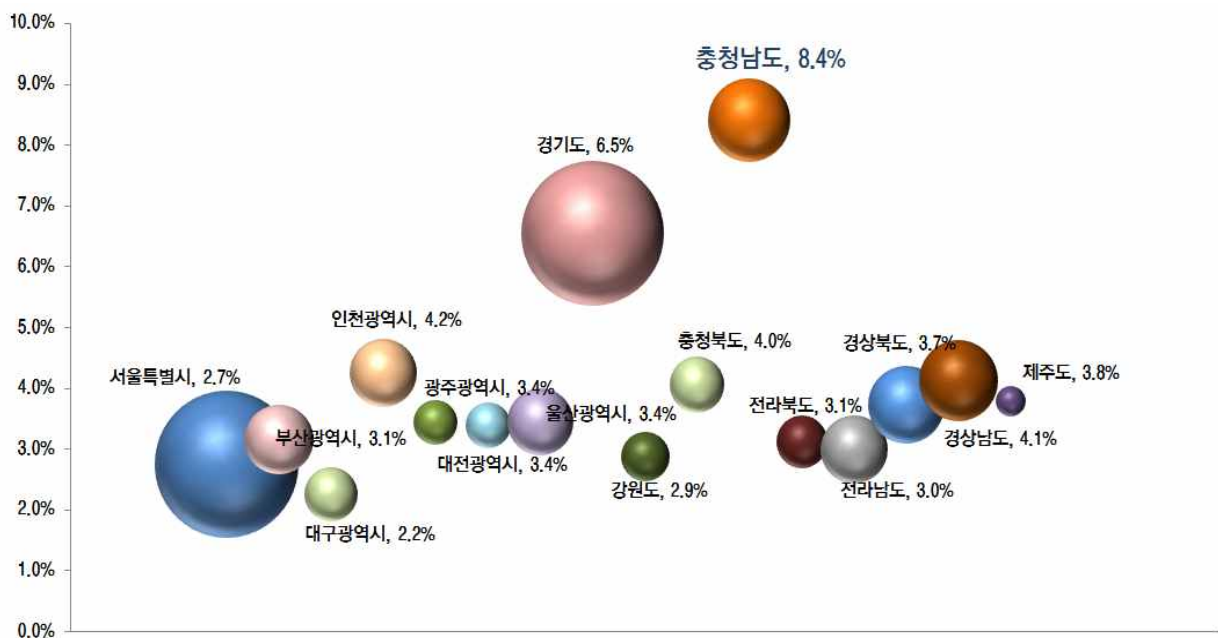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  
-네트워크 도시체계-

## 2. 충남 경제규모와 특징

### ① (GRDP)전국 최고의 경제성장, 전국 3위의 경제규모

- ▶ 2000년 이후 경제성장 가속화,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확대
- ▶ 북부권 중심의 경제력 격차 심화 (충남 GRDP의 75.1%)

- (지역내총생산의 지속적 확대) 충남 GRDP는 약 81조 4천 6백억원 (2012년, 전국 7.2%점유)으로 전국 3위이며, 2000년 이후 8.4%의 성장률을 보임
  - 1인당 GRDP는 4,200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 제조업이 전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전국 2위)로 제조업 중심 지역
- (세계경기침체이후 저성장 기조의 확대) 충남의 경제규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이후 점차 저성장 기조가 확대
  - 연평균경제성장률(CAGR) : 9.0%(2000~2009) → 3.8%(2010~2012)
  - \* 동기간 전국 : 4.2%(2000~2009) → 2.8%(2010~2012)
- (북부권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충남의 15개 시·군에 있어서는 북부권 4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이 충남 전체의 75.1% 점유
  - 천안시(26.8%), 아산시(32.5%), 서산시(9.5%), 당진시(8.7%)



[충남 및 전국 각시도의 경제성장률 (CAGR, 2000~2012)]

[충남 및 전국 시도의 지역내총생산 변화]

구분		연평균성장률 (CAGR)					전국대비 비중		
지역	지역내총생산 (2012년)	90년대	00년대	10~12	00~12	전기간 평균	1990	2000	2012
전국	1,126,743,542	5.6	4.2	2.8	4.2	4.9	—	—	—
서울특별시	251,922,998	4.4	3.0	2.2	2.7	3.7	29.1	26.3	22.4
부산광역시	56,975,515	3.8	3.0	3.3	3.1	3.5	6.8	5.7	5.1
대구광역시	33,889,093	3.6	1.7	2.0	2.2	3.1	4.5	3.8	3.0
인천광역시	54,021,383	4.9	4.2	2.1	4.2	4.6	5.1	4.7	4.8
광주광역시	23,236,516	4.8	3.2	1.5	3.4	4.3	2.4	2.2	2.1
대전광역시	24,047,686	5.1	3.4	1.7	3.4	4.3	2.4	2.3	2.1
울산광역시	51,405,087	—	2.6	5.2	3.4		—	5.0	4.6
경기도	245,859,528	7.5	6.6	3.9	6.5	7.2	13.8	16.6	21.8
강원도	27,711,238	3.9	2.8	2.4	2.9	3.4	3.4	2.9	2.5
충청북도	35,513,179	7.4	3.9	2.5	4.0	5.6	2.8	3.2	3.2
충청남도	81,460,260	6.9	9.0	3.8	8.4	7.7	4.1	4.5	7.2
전라북도	31,425,713	5.2	3.0	2.3	3.1	4.1	3.4	3.1	2.8
전라남도	53,038,851	5.9	2.9	1.7	3.0	4.2	5.5	5.4	4.7
경상북도	70,205,807	5.9	4.3	1.1	3.7	4.9	6.3	6.6	6.2
경상남도	75,973,338	1.9	4.3	1.7	4.1	3.3	9.6	6.8	6.7
제주도	10,057,350	4.8	3.6	4.9	3.8	4.4	1.0	0.9	0.9

주 : 증가율은 연평균증가율, 2012년 지역내총생산은 2005년 기준년가격

## ② (역외유출) 생산과 소득·소비의 괴리, 역외유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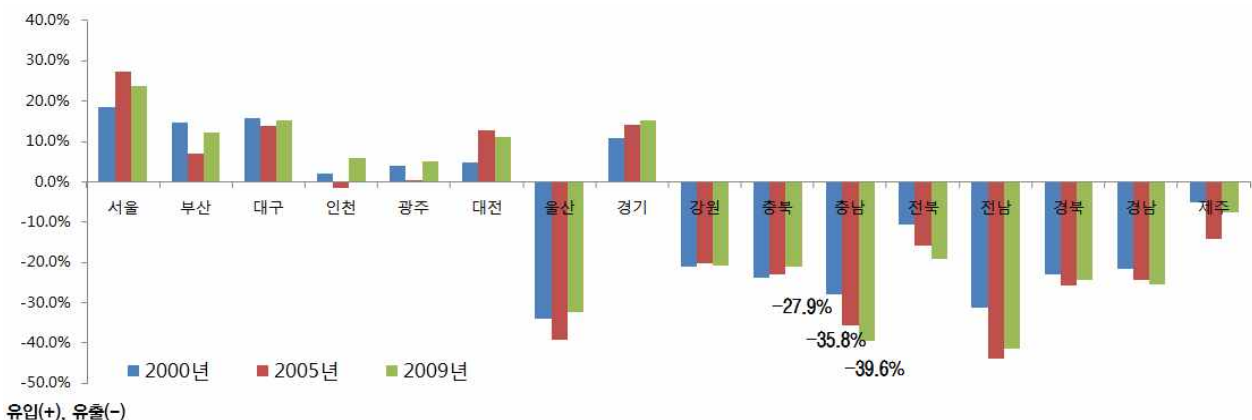
- ▶ 지역내 발생한 요소소득의 외부 유출 심화
- ▶ 지역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의 증가는 한계

○ (역외유출의 지속적 확대) 충남에서 발생한 요소소득 중 40%정도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 지역외로 역외유출 되는 소득 : 지역 내에서 발생한 요소소득과 순분원 소득 중 요소소득과의 차이

\* 통계청 지역계정 자료 활용 - 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의 역외 유출 비율

[ 시도별 소득의 역외유출 비율 ]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방안 연구, 2012

○ (생산의 증가, 소비의 상대적 감소) 2000년부터 10년간 지역내총산은 9.3% 성장을 했지만, 민간소비지출의 3.0% 성장

- 지역경제는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지역주민의 소득으로는 연계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

[ 지역내총생산, 민간소비지출의 연평균 성장률(충남)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성장률
지역내총생산(a)	30조 96백만원	47조 50백만원	75조 61백만원	9.3%
민간소비지출(b)	13조 81백만원	15조 38백만원	18조 58백만원	3.0%
b/a	44.6%	32.4%	24.6%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방안 연구, 2012

### 3. 충남의 산업구조와 특징

#### ① (산업구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가속화

- ▶ 전자부품(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주력산업의 편중 심화
- ▶ 제조업의 지역간 격차 심화 (북부권 4개지역 제조업의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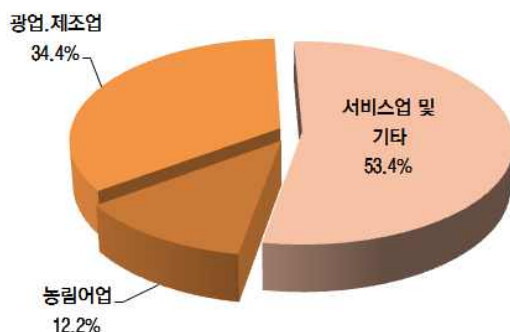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으며,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0~2012년 제조업 비중 34.4% → 58.0% (전국 26.2% →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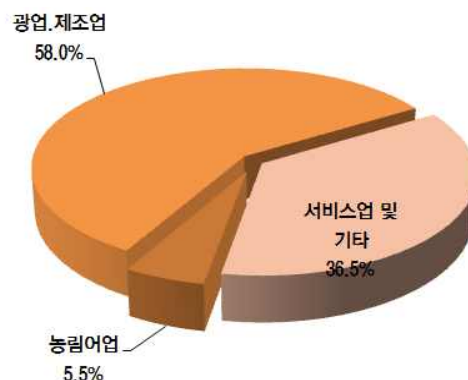
-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이 충남의 제조업을 주도

\* 가공조립형 제조업 66.2%, 기초소재형 제조업 28.8%, 생활관련형 제조업 5.0% (2012년)

[산업구조, 2000년]



[산업구조, 2012년]



자료 :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 편중 심화) 제조업내에서는 전자부품관련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충남 제조업을 견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7,079명으로 15.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33,268명으로 14.0% (중사자 기준)

○ (북부권 중심의 산업 집적) 대규모 제조기업과 밴더 중심의 산업집적화

- 제조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로는 천안시(31.3%), 아산시(24.9%), 서산시(4.7%), 당진시(7.1%) 등 서북부지역에 68.0%가 집적 (광공업통계, 10인 이상 제조업체)

- 제조업 부가가치(지역내총생산)의 지역별 분포로는 4개 지역이 90.9%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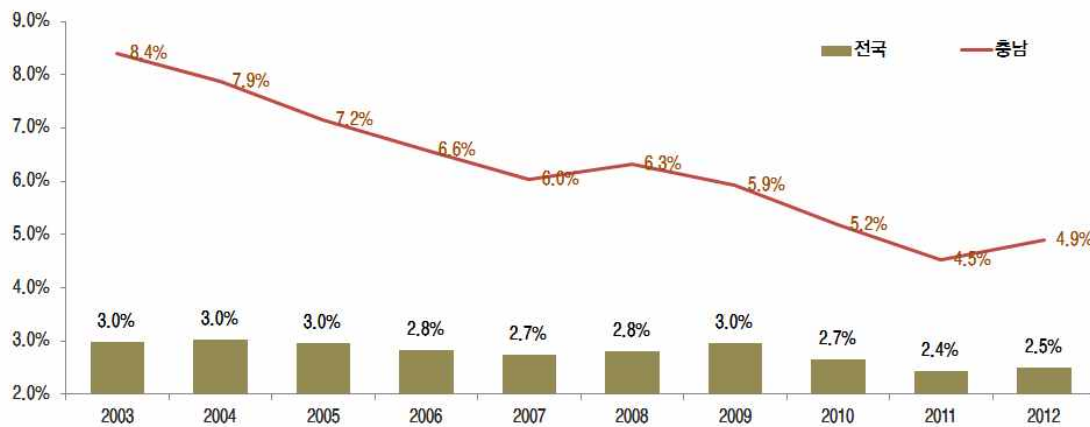
## ② (농업부문) 농업비중의 총량적 감소와 고령화 지속 확대

- ▶ 농림어업이 충남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속적 감소
- ▶ 6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의 행정리가 급증

○ (농림어업 비중 감소) 충남 전체 GRDP 중 농림어업의 비중이 2003년 8.4%에서 **2012년 4.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국은 3% 내외 수준으로, 전국보다 충남의 농림어업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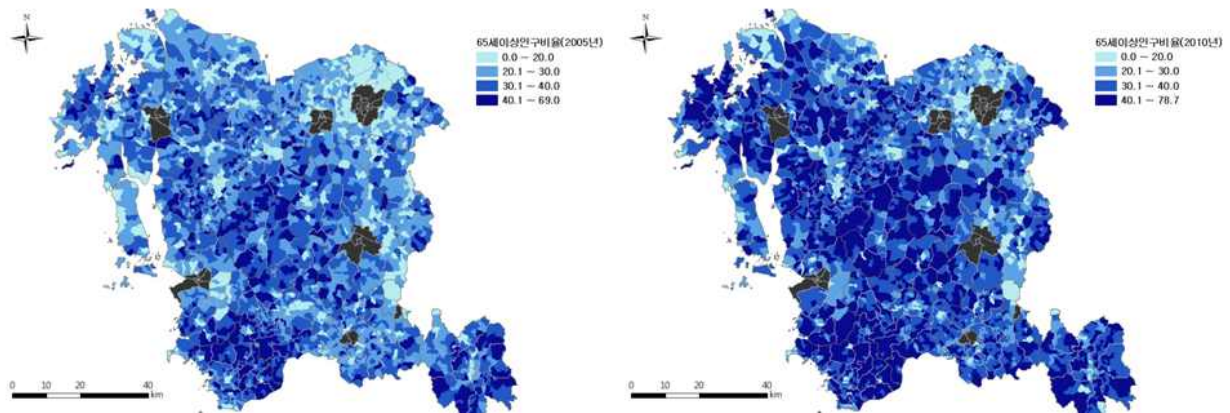
[G(R)DP중 농림어업 비중]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05년 기준가격

○ (농어촌마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급증) 6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의 행정리가 **2005년 100개에서 2010년 437개로 4배 이상 증가**

[충청남도 행정리별 고령인구 현황(200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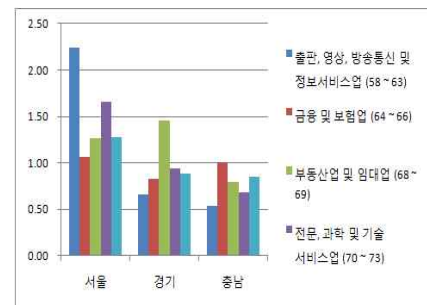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3농혁신 2030발전계획, 2014

### ③ (서비스업 부문) 생산자지원서비스 기능 취약

- ▶ 도내 생산자지원서비스 기능은 전 산업부문에서 취약한 실정
- ▶ 서비스업의 이용에 있어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의존

○ (생산자서비스 기능의 취약) 서비스업에 있어 입지계수측면에 전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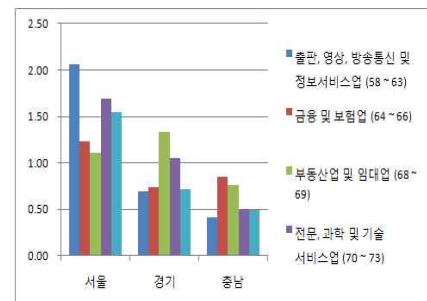
- 서울지역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을 구성하는 모든 업종의 입지계수가 높아 서비스업 전부분이 특화



[입지계수(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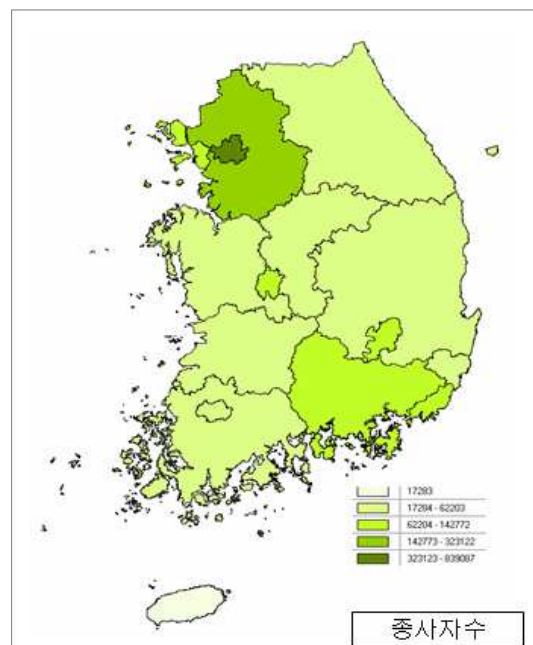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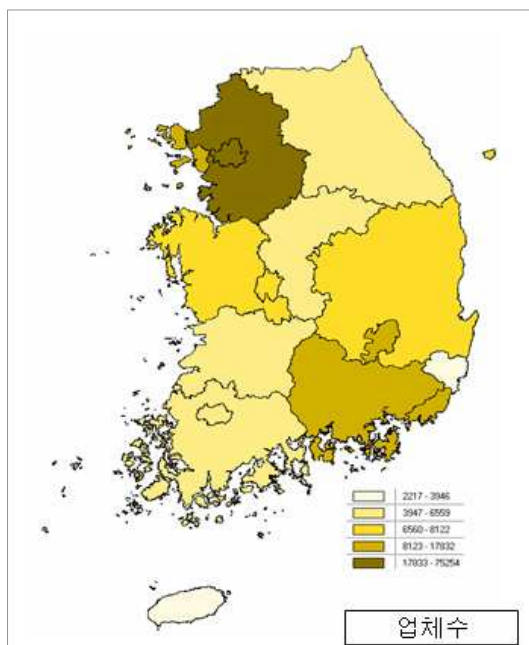
○ (수도권과 대전권에 의존적) 충남은 서비스업의 이용에 있어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의존

- 생산자서비스업은 대도시 입지향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음
- 서울지역이외는 업체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



[입지계수(종사자수)]

[생산자서비스업의 전국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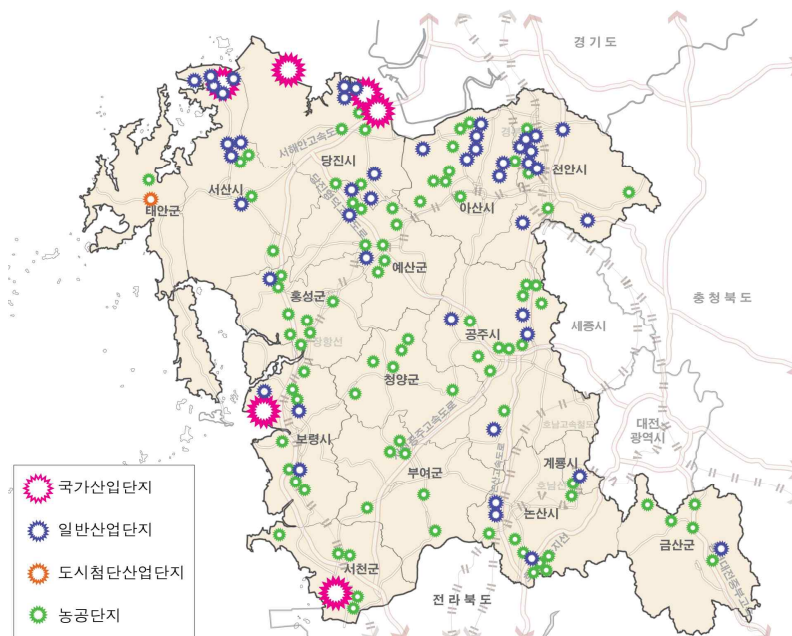
자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 기업지원서비스 특화방안, 2010.



#### ④ (산업입지) 수도권 인근 북부권 중심의 산업집적, 지역간 편중

- ▶ 수도권의 외연적 확대에 의한 북부권의 상대적 산업집적 편중
- ▶ 전국 산업단지의 10.52% 점유 (분양대상면적, 2014년 11월)

- (북부권 중심의 산업입지 분포)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가 분포
  - 특히 충남 내 주요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연관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어 중부권 최대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 (143개 산업단지, 분양률 87.8%) 충남에는 총 143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중에 107개소가 조성완료, 87.8%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 (2014년 11월)
  - 국가산업단지 5개, 일반산업단지 4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90개
- (농공단지의 노후화) 준공된 산단 107개소 중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은 전체의 70개소(일반 6개소, 농공단지 64)
  - 농어촌 지역에 주로 위치, 기술인력 등의 전반적인 인력수급에 애로
-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조성) 충남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종사자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산업단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충남의 산업단지 분포현황]

## ⑤ (기업규모) 대기업 중심의 기업규모 확대, 영세기업은 정체

▶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규모 확대가 큰 특징으로 부각

- (사업체, 종사자 규모의 지속적 증가) 충남 전체의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사업체(146,998개)와 종사자(777,843명) 지속증가 (2000년 대비 각 1.6%, 3.5% 증가)

\* 전국 연평균 사업체증가율 1.5%, 종사자증가율 2.7% (2000~2013)

- (대기업의 확대, 영세기업은 정체) 중기업이상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7.2%) 규모 확대가 큰 특징(전국 3.9%)

### [종사자 규모별 변화]

구분	2000년				2013년				CAGR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종사자
합계	119,149		496,966		145,998		777,843		1.6	3.5
5인이하	104,189	87.4	185,550	37.3	120,985	82.9	212,510	27.3	1.2	1.0
6인~20인이하	11,693	9.8	99,829	20.1	19,465	13.3	165,391	21.3	4.0	4.0
20인~299인이하	3,199	2.7	165,097	33.2	5,425	3.7	285,245	36.7	4.1	4.3
300인이상	68	0.1	46,490	9.4	123	0.1	114,697	14.7	4.7	7.2

자료 : 통계청, 사업체통계조사, 각년도.

## ⑥ (일자리 · 고용) 높은 임금과 고용률, 그러나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 구인-구직에 있어 직종간의 미스매치가 심화, 고용정책의 방향 필요

-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2013년 충청남도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전국 61.5%, 8개 도 평균 61.7%)로 경제활동인구는 117만 명, 취업자가 113만 7천명
- (직종간 미스매치) 2013년 충남 미취업자의 미취업 원인은 직종 간 미스매치 비중이 52.80%, 직종 내 미스매치는 33.13%, 전체 수요부족이 14.07%

### [구직자의 미취업 원인에 대한 분해]

구분		미취업자		
		직종 간 미스매치	직종 내 미스매치	전체 수요부족
구성비 (%)	전국	13.80	31.29	54.90
	충청남도	52.80	33.13	14.07
	도 지역	28.63	31.44	39.93

자료: 윤석천, 충남 인력수급전망과 고용정책과제, 제5차 충청남도 고용포럼 발표자료, 2014.

## ⑦ (대외교역) 높은 대외의존도, 대외적 경제충격에 취약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심, IT산업 기반의 수출 구조
- ▶ 무역의존도 113.25(우리나라 82.44)로 대외적 환경변화에 취약

- (교역규모의 지속적 확대) 충남의 수출은 643억 달러로 전국의 1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은 329억 달러로 전국의 6.4% 점유

### [충남의 수출입 현황]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천불)
	수출액(천불)	전국대비 비중	수입액(천불)	전국대비 비중	
2000년	16,990,792	9.9	9,978,081	6.2	7,012,711
2005년	33,519,624	11.8	17,863,460	6.8	15,656,194
2013년	61,752,306	11.3	32,922,245	6.4	28,591,781
CAGR	11.4	—	10.5	—	12.4

주 :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각년도.

- (높은 수출입, 대외개방형 경제구조) 충남의 무역의존도는 113.25 ('12)로 수출 73.68, 수입 39.57로 수출의 중심의 대외개방형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무역 의존도 : 우리나라 82.44('13), 일본 31.56('13), 중국 46.99('12), 독일 72.7('12)
- (수출입 품목의 집중) 충남은 IT제품 주 수출, 원유 등 원자재 주 수입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가 전체 수출의 44.0%를 구성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전자응용기기, 자동차 부품 등 (MTI 3단위 기준)

### [충남의 5대 수출입 품목]

충남 수출			충남 수입		
총계	64,281,666	비중	총계	32,922,245	비중
반도체	17,716,535	27.6	원유	15,472,726	47.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576,059	16.5	석유제품	3,931,248	11.9
전자응용기기	5,283,989	8.2	석탄	2,155,639	6.5
석유제품	5,180,283	8.1	기초유분	714,437	2.2
석유화학중간원료	3,455,872	5.4	정밀화학원료	622,84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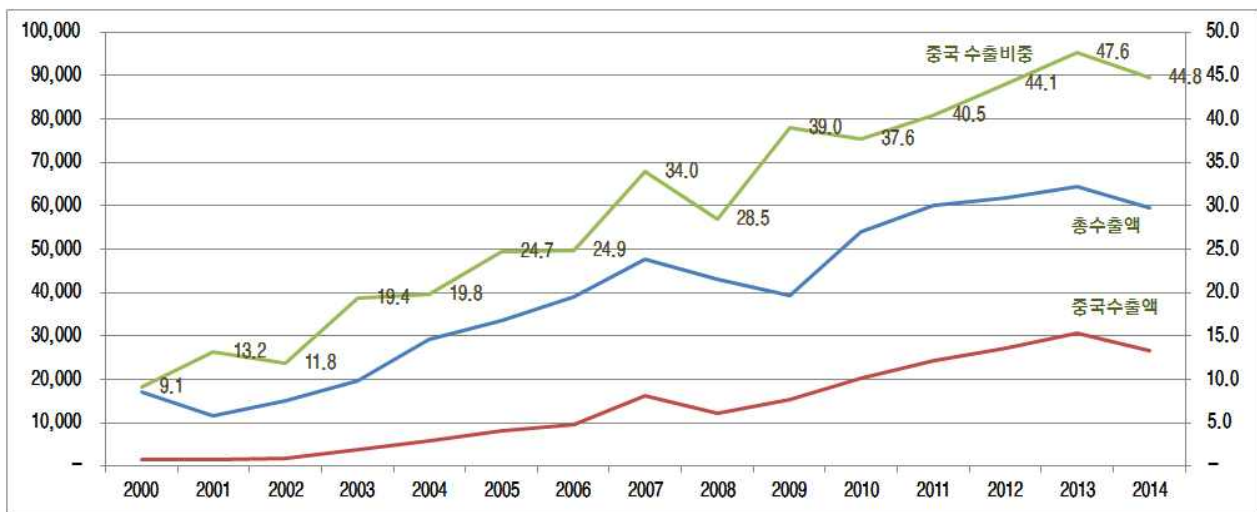
주 :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2013.

## ⑧ (중국의 부상) 對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중요성 증대

- ▶ 충남의 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규모의 47.6%로 대외중요성이 확대
- ▶ 중국의 기술경쟁력강화로 원자재보다는 자본재 중심으로 변화

○ (대중국 수출비중 확대) 수출에 있어 중국의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 구성되고 있으며, 자본재 중심으로 점차 확대

- 중국 수출비중 9.1%(2000년) → 34.0(2008년) → 44.8(2014년 11월 누계)
- 일본, 미국, 중국의 3국 수출중심에서 중국 1극화로 변화



[충남의 중국 수출 변화 추이]

○ (석유화학제품에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소재로 변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정제·화학제품에서 IT기반의 중간재 수출로 변화

- 충남수출은 원자재 26.1%, 자본재 67.7%, 소비재 6.1%의 비중(2013년 기준)

[중국 5대 수출품목의 변화]

구분 (2000년)	수출액		충남 비중	구분 (2013년)	수출액		충남 비중
	총액	비중			총액	비중	
	1552	100.0			30,602	100.0	
석유제품	542	34.9	3.2	반도체	7,314	23.9	11.4
석유화학중간원료	252	16.2	1.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257	20.4	9.7
합성수지	204	13.1	1.2	전자응용기기	5,170	16.9	8.0
석유화학합성원료	168	10.8	1.0	석유화학중간원료	3,163	10.3	4.9
종이제품	42	2.7	0.2	컴퓨터	1,449	4.7	2.3

주 :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기준, 각년도

## 4. 충남의 혁신역량

### ① (R&D) 대기업 등 민간주도의 R&D, 정부투자는 오히려 감소

- ▶ 민간중심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상대적 하락
- ▶ 정보처리,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지식기반 벤처기업의 미비

#### ○ (연구개발투자 지속적 확대) 충남지역의 전체 R&D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 GR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국평균보다 미흡  
\* 1.35%(2003년) → 3.71%(2011년), 동기간 전국 2.1% → 4.1%
-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는 전국규모보다 높으며, 지속적 확대  
\* 100백만원 (2004년) → 164백만원 (2012년), 동기간 전국 86백만원 → 111백만원

#### ○ (민간주도의 연구개발 투자, 정부투자는 감소) 전체 R&D투자는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정부연구개발투자 사업은 오히려 낮아져, 정부투자가 미흡

- 정부연구개발투자사업비 비중은 GRDP 대비 0.48%(2011년) 수준
- 표준화지수(대전=1)로 산정한 정부연구개발투자비는 0.012로 전국최하위 수준  
\* 0.026 (전국 13위, 2010년) → 0.012 (전국 14위, 2013년)

#### ○ (제조업 중심의 벤처) 제조업중심의 벤처기업은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정보처리, 연구개발서비스의 벤처의 성장은 한계

- 충남 벤처 기업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 수출액은 2012년 기준 952백만 달러로 전국의 5.4%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 10.7% 보다 높은 18.4%

[충남 산업별 벤처기업수(2013년 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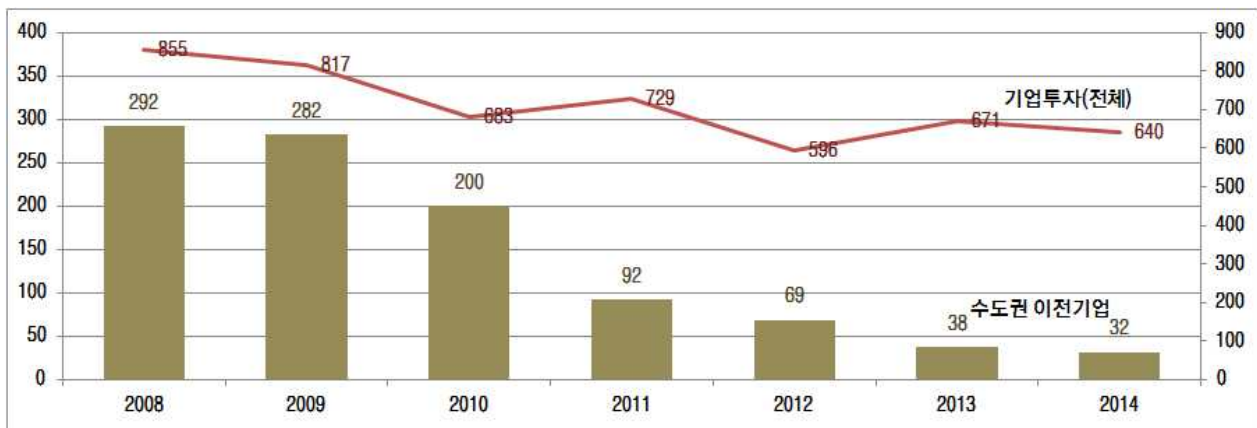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전국(개)	20,896	4,642	326	418	350	70	2,402
충남(개)	858	29	9	9	2	2	60
전국비중	4.1	0.6	2.8	2.2	0.6	2.9	2.5

자료 : 충남 벤처기업 현황 및 발전방안(충남발전연구원, 2013), 재수정

## ② (기업투자)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투자의 지속 감소

-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급감
- ▶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인한 새로운 외투기업 유인책 모색

- (수도권 규제완화 확대로 기업유치 감소) 충남은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된 2011년 이후 수도권 이전기업이 급속히 감소했으며, 세계시장에서의 중국경제의 양적 비중이 지속



[충남의 기업투자 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속적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도 도착금액(실제 투자 금액)으로 2억1600만 달러(31건) 규모로 최근 3년간 최저치
  - 12년 5억4600만 달러(50건), 2013년에는 6억1500만 달러(30건)
  -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이고 전북, 제주도 등도 역대 최고기록 임을 감안하면 상황의 심각성이 가중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도착금액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도착업체수	금액(백만불)	도착업체수	금액(백만불)	도착업체수	금액(백만불)
전체	1,972	10,702	1,819	9,838	1,552	11,517
수도권	1,518	8,316	1,427	7,419	1,046	7,047
수도권 외	420	2,335	373	2,408	355	4,358
충남	50	546	30	615	31	21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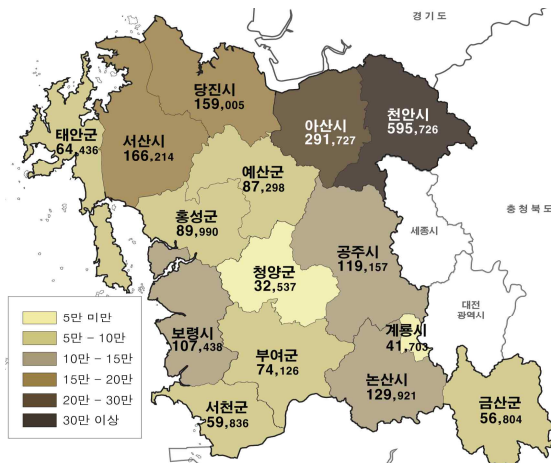
### ③ (인적자본)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의 확대, 취업의 미스매칭

- ▶ 지속적 인구 증가, 시군별 인구와 고령화율의 격차 확대와 지속
- ▶ 경제활동인구·인적자원 교육기관의 확대, 지역내 인재순환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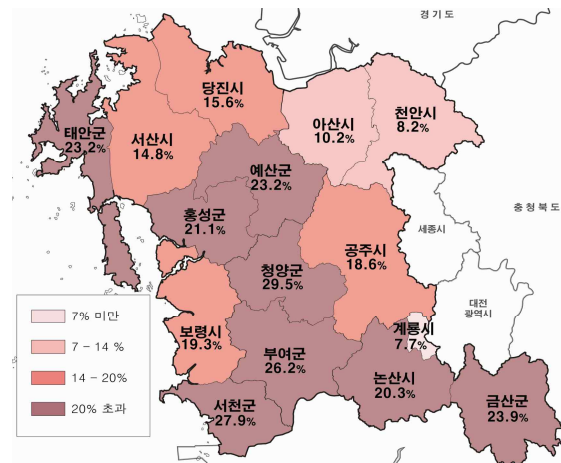
○ **(인구증가세 지속)** 2013년 기준 인구 205만명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0.8%의 증가세를 보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고령화율도 지속적으로 확대

- 2000년 이후 2013년까지 인구 0.8%, (전국 0.5%),
- 충남의 평균 고령화율은 14.9%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15개 시·군중 7개 지역은 고령화율이 21%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

[시군별 인구규모]



[시군별 고령화율]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발전계획(2014~2018), 2014

○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117만명으로 2000년 이후 1.9%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 역시 62.8%로 전국 59.5% 높은 고용률 시현

- 2000년 이후 2013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9% 증가 (전국 0.5%)
- 실업율은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의 증가로 3%이하의 안정적 수준

○ **(인력양성 기관 집중, 그러나 인재의 지역내 선순환 미흡)**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대학 등이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복귀 및 지역산업과의 미스매치**

- 전문대학·대학·대학원수 : 1990년 13개(13위) → 2000년 71개(5위) → 2010년 85개(5위)
- 전문대학·대학·대학원 학생수 : 1990년 47천명(13위) → 2000년 164천명(5위) → 2010년 256천명(4위)
- **지역 대학생의 대전·충남 취업률 31.0%**(충남발전연구원, 2010)

## 5. 경제적 삶의 기반

### ① (삶의 질)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체감 만족도는 낮음

○ (경제적 행복지수) 2008년 상반기 기준 전국 16개중 10위였으나, 2012년 2위로 상승하여 충남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지속 상승

– 2008상반기 10위 → 2008하반기 8위 → 2011하반기 6위 → 2012하반기 2위

–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전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종합적인 전반적 행복감도 조사에 포함

\*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소는 반기별로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를 조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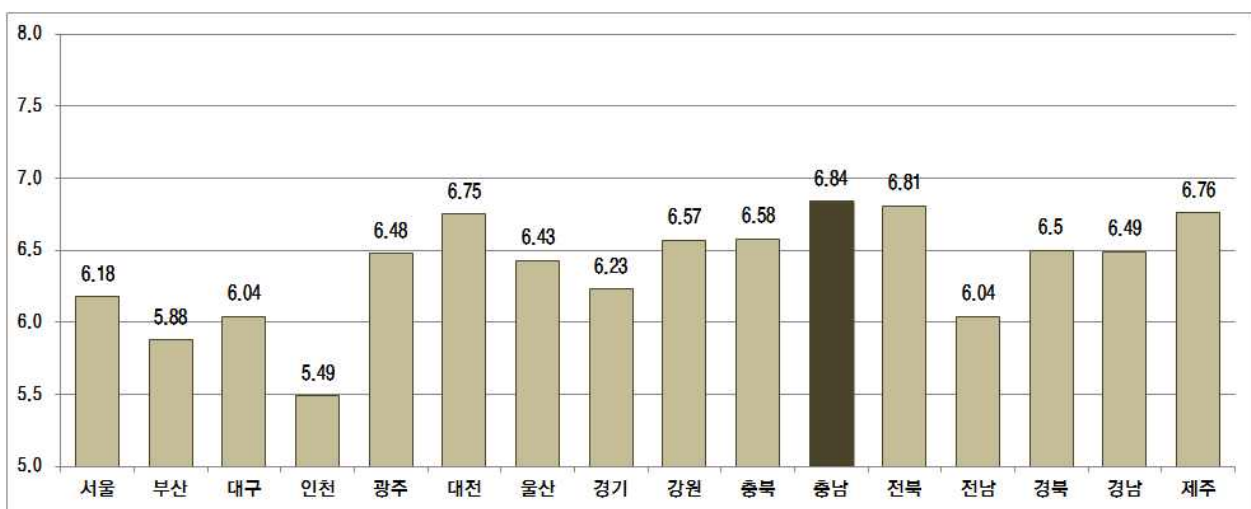
#### [2012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지수 순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8	13	3	6	9	1	4	7	5	13	2	16	11	10	15	12

자료: 대한민국경제행복지수, 현대경제연구소, 2013.

○ (주민생활력 지수) 충남의 주민생활력 총 지수는 6.84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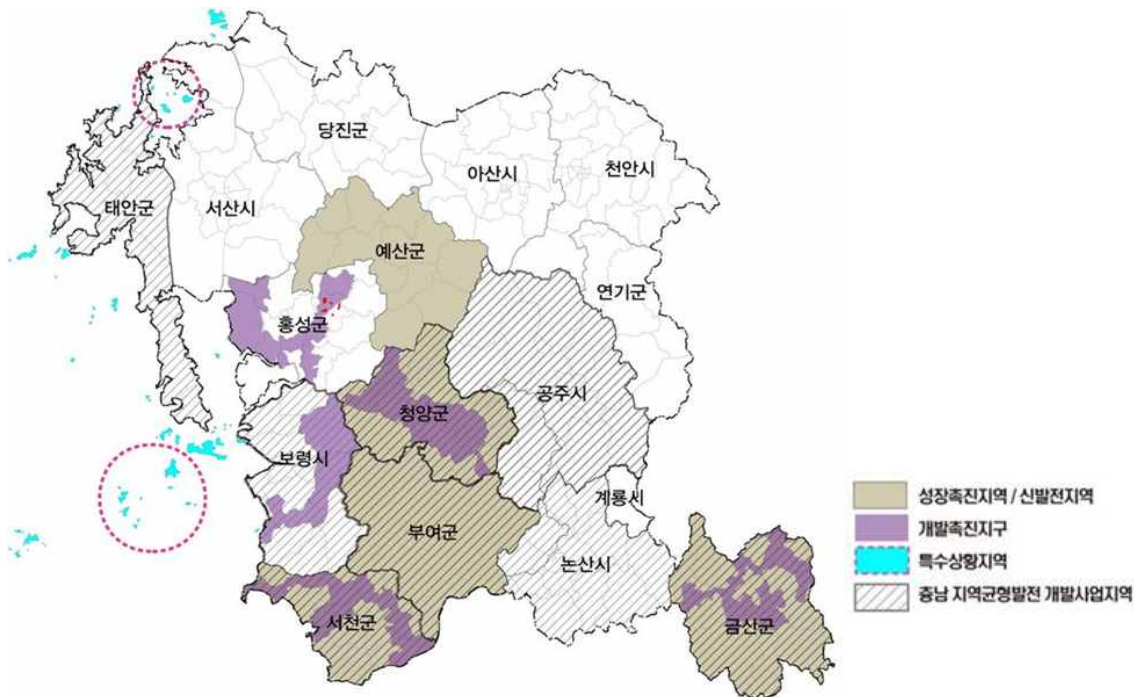
\* 주민생활력지수는 지역의 발전잠재력으로서 삶의 질은 교육, 근로, 문화, 환경, 의료, 복지, 주거 등 이를 종합적으로 작성한 지표



[지역별 주민생활력 총지수(2010), 지역발전포털([www.redis.go.kr](http://www.redis.go.kr))]

## ② 시군 지역여건(낙후지역)

- (개발촉진지구, 7개 시군) 보령, 태안, 서천, 부여, 청양, 홍성, 금산
- (성장촉진지역, 5개 시군) 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
- (신발전지역, 5개 시군) 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
- (충남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8개 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충청남도 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사업 대상 지역]

- (생활권) : 충청남도 6대 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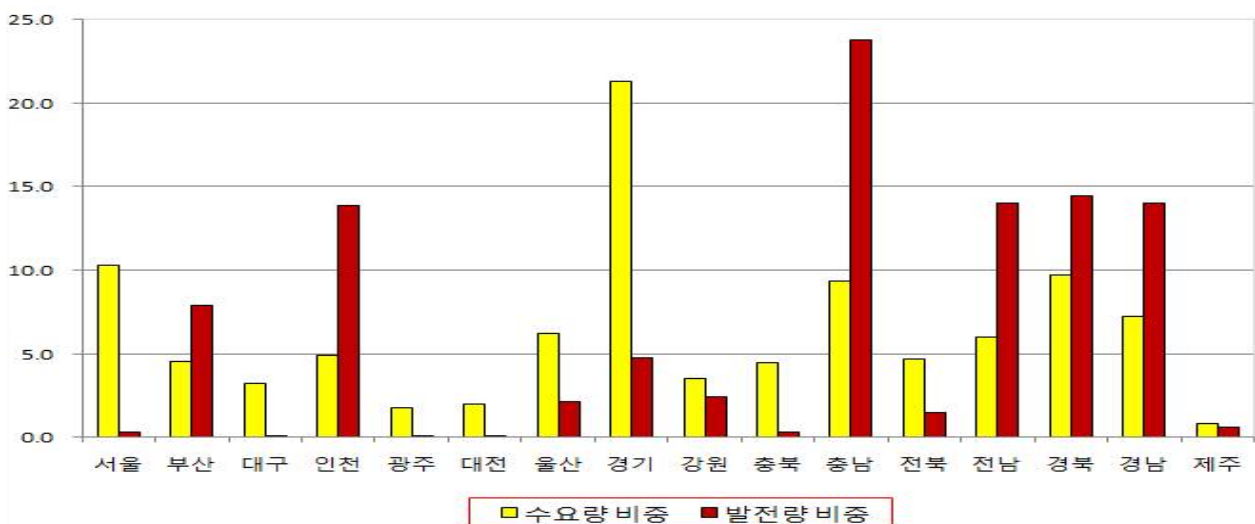
[지역생활권 구성 현황(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

### ③ (에너지 · 환경) 에너지 생산설비 집중, 다소비 산업구조로 환경문제

- ▶ 수도권에 대한 에너지 생산기지, 반면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는 가속화
- ▶ 전국 화력발전 설비의 49.3%,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37.6%

-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불균형) 충남은 우리나라 연간 발전량의 23.8%를 점유하고 있지만, 수요량은 9.4%에 불과, 발전설비 집중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노정
  -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은 2011년 기준<sup>1)</sup> 4억9천7백만MWh, 충남은 1억1천8백만MWh로 전체 발전량의 23.8%, 경남 7천만MWh(14%), 인천이 6천9백만 MWh(13.9%)
- (화력발전에 집중 및 가속화) 충남의 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252MW로 전국 화력발전소의 49.3%를 점유, 지속적 증설 추진으로 인한 문제가중
  -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64.1%가 화력, 충남은 화력발전의 49.3%
  - 현재 당진 9, 10호기, 신보령 1, 2호기 등 7개의 화력발전설비가 추가될 계획
- (발전설비 집중으로 인한 피해 가속) 전국 대기오염 물질의 37.6% 배출로 지역의 환경오염과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
  -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65,436톤(42.6%) 황산화 물질(SOx) 31,073톤(38.1%), 미세먼지(PM10) 1,163톤(41.3%) 배출. (%는 전국비중)

[행정구역별 수요량 및 발전량 비중(2011)]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2014.

1) 최근년도인 2013년보다 2011년 자료 사용. 2012-13년은 부품비리로 인한 원전의 대량 가동중지로 전력수급과 관련된 수치에 특이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연도별 우리나라 및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 국	481,963,383	497,350,347	508,317,658	516,186,126	515,677,178	524,111,342	532,200,737	569,550,000	629,170,000	654,700,000
충 남	73,781,021	75,089,651	79,504,928	78,491,685	83,307,173	94,173,983	104,185,754	117,039,212	134,970,854	146,895,359
화력발전	52,891,627	54,752,157	59,616,370	59,993,638	64,393,599	74,654,870	84,383,614	91,521,185	101,388,004	103,661,681
간접배출량	6,719,791	7,649,428	8,719,409	9,787,969	11,051,655	12,987,679	14,270,718	17,091,943	20,190,330	22,293,579
발전량(외부)	46,171,836	47,102,729	50,896,961	50,205,669	53,341,944	61,667,191	70,112,895	74,429,242	81,197,674	81,368,102
충남 (발전배출량 제외)	20,889,394	20,337,494	19,888,557	18,498,047	18,913,574	19,519,113	19,802,140	25,518,027	33,582,850	43,233,678
목표관리대상	27,609,184	27,986,922	28,607,967	28,286,016	29,965,229	32,506,792	34,072,859	42,609,970	53,773,180	65,527,257
화력발전비율 [(화력발전/충남)*100]	71.69%	72.92%	74.98%	76.43%	77.30%	79.27%	80.99%	78.20%	75.12%	70.57%
국가대비 비율 [(충남/전국)*100]	15.31%	15.10%	15.64%	15.21%	16.15%	17.97%	19.58%	20.55%	21.45%	22.44%
국가대비 비율 [(목표관리/전국)*100] (발전배출량제외)	5.73%	5.63%	5.63%	5.48%	5.81%	6.20%	6.40%	7.48%	8.55%	10.01%

자료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컨설팅 보고서-충청남도, 2013.

